

담양 '어울림장터' 지역 상생·소통 거점 자리매김

4차·25팀 참여...3천200만원 매출 소상공인·창작자·주민 소통창구 역할 '담양형 장터 모델' 구축 논의 본격화

담양군의 '어울림장터'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관광객을 하나로 잇는 든든한 상생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플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해 영산강문화공원 일원에서 운영한 어울림장터가 지난 6일 4회 차 행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일정을 마무리했다.

어울림장터는 지역 공동체와 창작자,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하는 판매·체험형 장터다.

올해 행사에는 대회 평균 25개 팀의 판매자가 참여해 수공예품, 생활소품, 지역 농산물과 다채

로운 먹거리를 선보였다.

장터는 회당 평균 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거뒀으며, 주말을 맞아 담양을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판매와 체험, 소통이 어우러진 지역 축제의 장으로서 독특한 역할을 해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장터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로, 어울림장터는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소통의 훌륭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참여 판매자들은 서로의 창업 경험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새로운 지역 내 관계망을 형성했고, 관광객들에게는 담양 곳곳에서 이뤄지는 공동체 활동과 풍부한 지역 자원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홍보 창구가 됐다.

이같은 성과를 위해 센터 직원과 지역 활동가들은 기획 단계인 판매자 모집부터 공간 구성, 안전 시설 점검, 현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



담양군플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한 '어울림장터'가 지난 6일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최근 열린 '어울림장터' 모습. <담양군 제공>

정에 밀착 참여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장터 환경을 조성했다.

장터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군과 센터는

2019년부터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울림장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시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첫 대화 모임에서는 행정 관계자와 참여 판매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내 장터 운영 현황과 한계를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판매자들은 안정적인 판매 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참석자 모두 주민과 판매자가 주도하는 자립형 운영 체제 구축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센터는 이달 중 추가 논의를 열고 세부적인 운영 주제 구성과 역할 분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순에 군플뿌리공동체지원센터장은 "어울림장터는 주민과 판매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지양분 삼아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장터 모델을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고흥군, 우수 봉사자 인센티브 지급...나눔 문화 확산

올해 첫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행

100시간 이상...최대 20만원 제공

고흥군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우수 자원봉사자를 예우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고흥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에 참여한 군민에게 고흥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

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누적 봉사 시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적용되며 ▲100시간 이상-200시간 미만은 8만원 ▲200시간 이상-500시간 미만은 15만원 ▲500시간 이상 최대 20만원 등 차등 지급을 통해 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올해 첫 시행에 따라 총 79명의 우수 자원봉사자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들에게는 기준에 따른 상품권이 지급됐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 수령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로 연계할 수도 있어 나눔의 선순환 의미를 한층 더하고 있다.

고흥군은 대가 없이 묵묵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온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번 제도가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흥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에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여수시, 하반기 '시내버스 시민평가단' 모집

섬박람회 대비...19일까지 총 100명

여수시가 다가오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시내버스 시민평가단을 새롭게 꾸린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평가단 100명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성인 80명, 중·고등학생 20명으

로 이들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한다.

평가단은 매월 6회(운수업체별 2회씩) 시내버스에 압행 탑승해 ▲승객 응대 태도 ▲안전 배려 ▲차내 청결 상태 ▲준법 운행 및 무정차 통과 여부 등 전반적인 운행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또한 평가단의 편의성과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단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입력이 어려운 참여자를 위해 기존 종이 평가표 제출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취합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해, 업체 간 자율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경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섬박람회를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기본 좋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내버스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곡성군, 글루텐프리 '쌀샌드' 가공 기술 특허 획득

'가루쌀' 활용...상품화 추진

곡성군이 지역 농산물인 가루쌀을 활용해 개발한 건강 디저트 가공 기술이 특허를 획득하며 지역 농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 청신호를 쏘았다.

9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는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가루쌀을 이용한 글루텐프리 쌀크림샌드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특허는 밀가루 대신 곡성산 가루쌀을 사용해 글루텐이 없는 쌀 디저트를 가공하는 기술로, 쌀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이 살리면서 볶은 쌀을 활용한 크림을 접목해 고소한 풍미를 극대화했다.

특히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 제조 공정 전반의 기술적 방법을 확립해 안정적인 품질 유지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가루쌀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역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쌀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특허 등록에 머물지 않고 관내 베이커리 업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맛다곡성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거점 삼아 시제품 생산과 기술 이전, 품질 관리 등 본격적인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례 간전면,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정비 '구슬땀'

복지기동대 9명 생활폐기물 등 수거

구례군 간전면은 "최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소속 대원 9명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수거 및 대대적인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가구는 거주자의 거동 불편으로 인해 오랜 기간 폐자재와 불용품, 생활 쓰레기 등이 방치되면서 위생은 물론 일상생활 안전까지 위협 받는 열악한 상태였다.

기동대원들은 집 안팎에 산더미처럼 쌓인 묵은 폐기물을 말끔히 치우고 세심하게 주변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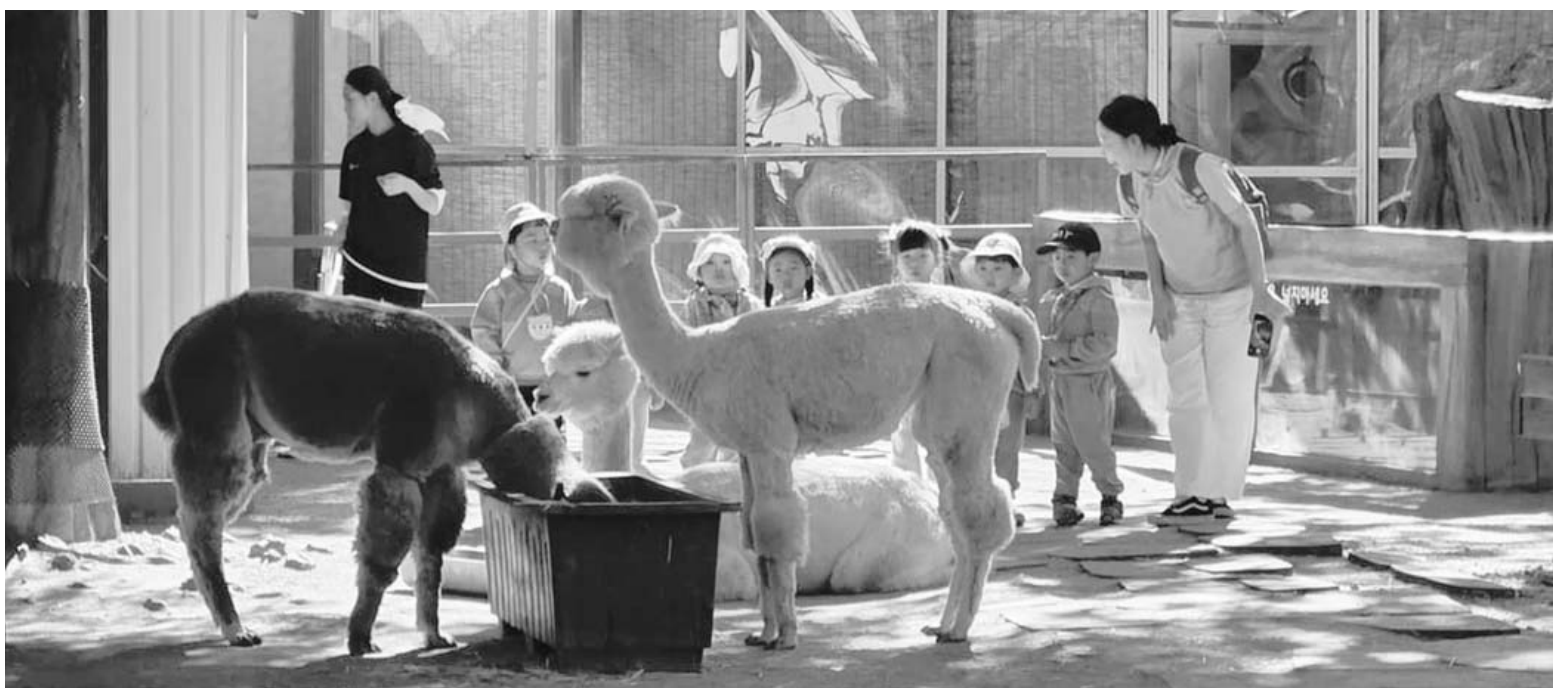
특히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등 안전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환경 내 적치물을 완벽히 제거하며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지원을 받은 주민은 "몸이 불편해 치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냈는데, 대원들이 내 집처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가장 큰 시름을 덜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선동 간전면 복지기동대장은 "취약계층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현장 중심의 복지 활동을 멈추지 않고,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든든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어린이동물원에서 어린이들이 알파카를 관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국가정원, '사육사의 비밀 가방' 운영

11월까지... '행동풍부화' 활용

순천시는 9일 "순천만국가정원 어린이동물원이 동물 복지 증진과 어린이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인 '사육사의 비밀 가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야생에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풍부화' 도구를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형 생태 교육이다.

행동풍부화란 제한된 공간에 있는 동물들에게 다양한 감각 활동과 탐색 기회를 제공해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돕는 필수적인 동물복지 활동이다.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회차당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들은 사육사와 함께 물범, 육지거북

등 각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꼭 맞는 먹이 장난감과 놀이 시설을 직접 기획·제작하며, 이 과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마음으로 배우게 된다.

순천만국가정원 관계자는 "사육사의 비밀 가방"은 아이들이 동물복지의 진정한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곽동현 기자